

Section I

---

연구논문



# 이윤 및 이자의 정당성에 관한 이론사적 연구<sup>(1)</sup>

홍 기 현

고전학파의 균형이론체계에서 생산과정의 잉여로서 이윤을 설명하려던 시도는 신고전학파 균형이론체계에서 자본 희소성의 대가로 이윤 또는 이자를 설명하게 되면서 시장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인 경제적 이윤은 우수한 생산능력의 대가로서 단기에서는 존재하지만 장기에서는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신고전학파 이론체계의 전통 속에서 슈페터는 균형을 파괴하면서 혁신을 통해서 독점이윤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이윤을 설명하여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그의 이론은 결국 균형에서는 이윤이 사라지는 것으로 되므로 기업의 내부조직 문제를 이론의 중심 요소로 자리 잡게 하는 데는 미흡했다. 기업조직의 문제를 이론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기 적절한 사례는 나이트가 제안하듯이 불확실성을 직면한 기업가의 역할을 탐구하는 것이다. 즉 기업가는 정형화된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기업 내부의 기능(function)들에 대해서 분업체계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이익을 남기는 판단력을 갖고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원기반이론에서도 기업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기업 내부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핵심역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 글에서는 고전학파에서 신고전학파로 이어지는 주류경제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슈페터, 나이트, 나아가 경영학적 자원기반이론도 현실적인 이윤 발생을 설명하는데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함을 보인다.

주제어: 이윤, 이자, 고전학파 생산비설, 신고전학파 분배이론, 슈페터 경제혁신설, 나이트의 불확실성 이론, 자원기반 기업이론

---

(1) 이 논문의 작성 과정에서 작문, 그림, 참고문헌 준비에 있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김태현 학생의 도움을 받았으며, 이 서베이 논문의 바탕이 된 필자 자신의 연구 논문들에 대해서는 그 동안 주로 한국경제학사학회의 회원들의 논평들이 참고가 되었으나, 물론 최종적 내용은 모두 저자의 책임이다.

## 1. 머리말

자본의 소유와 사용에 따른 대가인 이윤과 이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등장 이후 크게 발생하기 시작한 소득으로서 이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19세기에는 많은 이론이 제시되고 논쟁이 있었다. 현재 경제학에서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합의가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경제인식의 바탕에는 이윤과 이자에 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기업,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서 경제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업 활동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결여된 경우도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제이론의 역사에서 어떻게 이윤과 이자를 취급하고 있는지 비교함으로써, 현실 경제의 자본소득에 대한 인식의 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다음 절에서부터 순서대로 경제이론의 시대적 흐름과 함께 이윤 및 이자이론의 구조를 설명하려고 한다. 여기에는 크게 보아서 고전학파적 이론체계, 신고전학파적 이론체계, 그 밖의 비주류 이론체계가 해당된다.

제2절에서는 고전학파의 이론체계에서 이윤과 이자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설명한다. 즉 고전학파적 이론체계에서는 경제를 순환적 생산관계로 설명하면서 장기균형상태에서 임금이 최저생활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보고, 지대를 제외하고 발생하는 소득을 이윤이라고 차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밝힌다.

제3절에서는 신고전학파적 이론체계의 이윤과 이자이론을 설명한다. 여기에서는 경제를 교환을 통한 거래관계로 보기 때문에 임금, 이윤 및 이자, 지대의 기본적 발생원리는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장기균형에서는 이윤은 사라지기 때문에 비용으로서 이자가 주로 분석되고, 경제적 이윤은 부수적인 것으로 된 경위를 설명한다.

제4절에서는 다양한 이윤과 이자이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주류경제학의 전통 속에서 이윤을 설명하려는 시도로서 경제혁신과 불확실성의 결과로 설명하려는 시도이며, 다른 하나는 광범한 의미에서 제도적 접근에서 이윤을 설명하는 시도들의 이론체계적 특징을 설명하려고 한다. 그런데, 제도적 접근에서 설명되는 이윤이 균형이론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 경제학 교육에서는 거의 사라진 점에 주목하여, 경영학적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 등의 이론적 시각을 원용하여 현대 경제학과의 관계를 설명

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1930년대 이후 본격화된 화폐적 이자이론의 등장을 통해 실물경제이론에서의 이윤이론의 입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세 가지 이론체계를 비교하여 일반적인 경제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한다.

## 2. 고전학파적 이론체계와 이윤·이자

### 2.1. 배경적 설명과 스미스의 이윤관

고전학과 이전의 경제사상에서는 이윤과 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설명체계는 별로 없었다. 고대와 중세의 경제사상에서는 오히려 화폐의 불임성(sterility)을 강조하면서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이자를 수취하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인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단적인 사례로 기독교적 윤리에서는 궁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대부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공동체적 신앙에서 보면 부도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너희가 나의 백성에게, 너희 곁에 사는 가난한 이에게 돈을 꾸어 주었으면, 그에게 채권 사처럼 행세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물려서도 안 된다”[구약성경, 탈출기 22:24].<sup>(2)</sup>

이와 같은 이자수취의 금지에 대한 생각은 물론 수 만년에 이르는 인류의 경제생활이 기본적으로 자급자족적 경제운영방식을 통해 이루어졌고 오랜 기간 동안 경제성장은 거의 정체되어 있어서 자본축적은 극히 미미한 것이었으므로 자금을 빌렸다고 해서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릴 기회는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연적인 발견이나 자연의 혜택에 따른 운으로 생각되기 쉬웠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자수취는 일종의 영합게임(zero-sum game) 상황에서 임차인의 소득의 일부를 대부자가 편취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 이자를 금지하는 규범은 많은 성경 구절에서 나타난다(구약 레위기 25:37, 신명기 23:21, 시편15:5, 예제키엘 18:17, 신약 루카 6:34~35). 이자 수취 금지에 대한 규범은 이슬람 경제사상에서도 공통된다. 중세 신학자들도 이자 금지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자금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위험에 대한 대가나 투자기회의 상실 등의 이유로 이자수취를 인정하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Spiegel(1983) 참조.

이러한 상황은 경제성장의 속도가 가시적으로 빨라지면서 달라졌다. 물론 산업혁명 초기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1~2%대에 불과한 낮은 것이었지만, 한 세대 안에 경제의 크기가 배증(倍增)되는 가능성이 생김으로써 자본축적을 통해 잉여가 발생하고 이를 이윤이나 이자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나누어 갖는 것이 참여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전학파적 이윤관은 통상적으로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자리를 잡은 것으로 해석된다. 고전학파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의 저작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은 물론 산업혁명 이전인 1776년에 발간된 것이지만, 수공업적 공장제를 관찰하면서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이익이 발생되고 이것이 자본축적의 원인이라는 점을 관찰한 책이었다. 즉 분업에 의한 생산성 향상<sup>(3)</sup>이 자본축적을 가져오고, 자본축적이 경제규모를 키움에 따라서 시장이 확대되면 충분한 시장 수요에 맞추어 또 다시 분업을 통한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는 ‘성장의 선순환’이 작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메커니즘의 발견을 통해서 산업혁명 직전 중농학파적(physiocratic) 인식에 따라 잉여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던 것에서부터 제조업 부문에서도 상업적 동기에 의해서 지대와는 별개로 이윤이라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고,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대소득, 자본소유자에 대한 이윤소득, 노동제공자에 대한 임금소득이라는 자본주의 하에서의 세 가지(tri-partite)의 기본구조에 대한 인식이 뚜렷해진다.

“이윤은 임금과 전혀 다르고 완전히 상이한 원리에 의해 규제되며, 이 지휘·감독하는 노동의 양·고통·창의성과는 아무런 비례관계도 없다. 이윤은 전적으로 투하자본의 가치에 의해 규제되며 이 자본의 크기에 비례해 크거나 작다[스미스(1776, 김수행역, pp. 54)].”

이에 따라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기본적 요소인 임금, 이윤, 지대라는 세 개의 상이한 종류의 수입에서 이자는 이윤의 일부로 지급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3) 스미스가 국부론의 앞부분에서 제시한 분업의 이익을 가져오는 세 가지 요인, 즉 숙련도 향상, 작업 전환 속도의 절감, 기계발명의 가능성외에 다양한 분업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스미스는 분업이 잉여창출의 원천임을 밝혔으나, 그것이 균형화 과정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것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생산과정의 기업조직 내부에 대해서 탐구하는 시각을 제시한 점에서 선구적이라고 평가된다.

“자본을 자기 스스로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대부하는 사람이 자본으로부터 얻는 수입을 화폐이자(또는 사용료)라고 부른다. 이자는 (그 차입자가 그 화폐사용으로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된) 이윤에 대해서 대부자에게 지불하는 보상이다. 그 이윤의 일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화폐를 사용하는) 차입자에게 당연히 귀속하며, 다른 일부는 (차입자에게 이 이윤을 만들 기회를 제공하는) 대부자에게 귀속한다”[스미스(1776, 김수행역, pp. 58)].

이와 같이 스미스는 임금, 지대, 이윤이라는 국민소득의 삼 요소를 제시하고 제조업을 통해서도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서, 경제학의 시조라고 불릴만한 통찰력을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제조업 중심의 경쟁자본주의가 개화된 시기가 아니라서 몇 가지 시대적 한계를 지닌다.

우선 자본에 대한 대가로서 이윤과 부수적 소득으로서 이자에 대해 명확하게 개념화하고 경쟁을 통해서 각산업의 이윤율이 균등화되는 추세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경쟁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이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즉 자본축적을 통해 공급이 증가하면 이윤이 하락한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인식했지만,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일반균형적 설명을 완성시키지는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당시 상공업자가 여전히 각종 규제적 조치에 의해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독점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윤과 지속적 경쟁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이윤을 체계적으로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현실적 필요성이 적었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지대에 대해서도 토지의 비옥도와 관계없이 토지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절대지대와 토지 비옥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차액지대의 개념에 대해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경제성장이 있는 경제에서 양자가 어떻게 존립하게 되는지 일반균형적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한계는 지대를 자연의 혜택으로 보는 중농주의적 잔재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업의 이익을 통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경우 이것이 왜 시장에서 거래 가능한 각종 생산요소의 소득으로 환원되지 않고, 기업조직 자체의 대가로 남게 되는지 설명하는 것이 미흡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후대의 맑스나 신고전학파 양자 모두에게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비판받게 된다. 즉 맑스경제학에서는 이윤의 본질이 착취된 노동이라는 점을 보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고전학파에 의해서는 기업의 우수한 생산역량에 대한 대가는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게 된다. 그렇지만, 양자의 비판은 조직에 내재하는 생산역량은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쉽

게 이전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제도적 접근에서 보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니다.

## 2.2. 리카도의 이윤이론과 고전파 체계의 완성

고전학과 경제이론을 체계적으로 수립한 데이비드 리카도는 1817년에 발간된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지대, 이윤, 이자의 분배분에 대해서 엄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의 설명을 통해서 아담 스미스의 설명에서 미흡하게 남겨진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된다.

우선 리카도는 차액지대의 발생 원리를 분명하게 하면서 생산성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지대와 생존비 수준에서 결정되는 임금, 그리고 생산물 중에서 지대와 임금의 나머지 잔여소득(residual income)으로 발생하는 이윤이 각각 다른 원리에 의해서 결정됨을 설명하고 있다. 즉 지대는 차액지대설, 장기적인 임금은 생존비설, 이윤은 잔여소득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경작되는 토지 중에서 생산성이 가장 낮다면 지대를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한계토지에서는 모든 소득은 이윤과 임금의 합으로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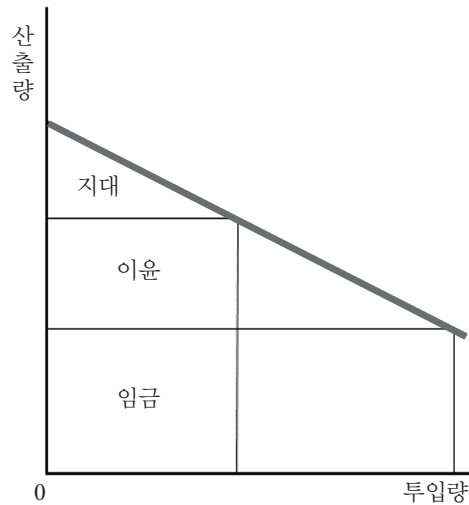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는 이전에 정립하려던 것과 같은 결론, 즉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를 통해, 이윤은 자본이 투자되어도 지대를 발생할 수 없는 토지에서 노동자의 필수품을 제공하는데 투하되는 노동의 양에 의존한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Ricardo(1817, pp. 126)].

다음으로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가 제약된 상황에서 자본축적이 계속되면 생산성이 저하되어 결국 모든 소득이 지대와 임금으로 나누어지고 이윤이 없어지는 정체상태(stationary state)가 도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통해서 성장이 없는 경제에서는 이윤 및 이자가 0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토지를 사용하는 농업부문을 육성하는 것은 영국경제에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설파하면서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리카도의 분석은 후대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투입량과 산출량을 두 축으로 한 간단한 삼각형 그림을 통해 간략하게 요약된다.

<그림 1>에서 수평축은 투입물의 양을 수직축은 산출물의 양을 나타낸다. 또한 투입물은 노동으로만 구성되어 있거나 노동과 도구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그림 1〉 리카도의 분배론과 정체상태

일정해서 노동량에 비례하여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산출물은 투입물의 양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되는 산출량, 즉 한계생산물을 나타낸다. 이 때 첫 번째 굵은 선은 비옥한 토지가 상대적으로 풍부할 때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투입물의 수준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는 더 비옥한 토지에 투입된 결과 얻어지는 생산량과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가장 열악한 토지에 투입물에 대한 생산량의 차액만큼이 지대로 지주에게 수취될 것이며, 이 면적은 작은 삼각형으로 나타난다. 아래 사각형 중 밑 부분은 투입물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불되는 임금을 나타내며, 삼각형과 아래 사각형 사이 면적이 잔여소득으로 이윤을 나타낸다.

그런데, 자본축적으로 인해서 토지의 경작이 확대되면 결국 생산성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상태는 이윤이 0이 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다. 즉 점선으로 표시된 투입물의 수준이 되는 상태에서는 한계토지의 생산성 이상의 부분은 모두 큰 삼각형으로 표시된 지대로 수취될 것이며, 투입물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불하고 나면 잔여소득인 이윤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고전파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경제성장이 멈춘 정체상태(stationary state)라고 부르고 있다. 즉 정체상태에서의 소득은 모두 지대와 임금으로만 구성된다.

그런데, 고전파 경제학에서는 투입물의 양, 즉 생산수준을 설명하는 것은 이윤이 남으면 모두 투자되어 자본축적이 계속된다는 공급중심의 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경제에서 생산수준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결여되

어 있다는 비판이 발생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고전학과 이론체계를 완성시키는 시도로써 스라파(Pierro Sraffa)는 리카도 저작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1960년에 발간된 『상품에 의한 상품생산(*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이란 책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 이론과 가격을 결정하는 이론을 분리한 새로운 이론체계를 제시한다. 즉 장기균형상태에서 가격은 생산비의 합으로 이루어진 일반균형적 가격이론으로, 수량은 국민소득을 정하는 별도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이 고전학파의 이론체계라는 것이다.

스라파의 해석에 따르면, 산업부문별 수익률이 동일하게 되는 장기균형상태에서는 기술, 생산수준(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분배관계라는 데이터가 외생변수로 주어진 상태에서 장기균형가격과 이윤율은 생산비를 설명하는 일반균형식에서 동시에 결정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sup>(4)</sup>

#### 〈도식 1〉 고전파적 이론체계

기술, 생산수준, 분배관계 ⇒ 장기균형가격들과 이윤율

이 설명에 따른 이윤은 상품을 투입물로 쓰고 다른 상품을 생산하는 순환적 생산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잉여가 남은 체계라면 임금과 이윤을 서로 분배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갖는다.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sup>(5)</sup>

$$(2.1) \quad r = R(1 - w)$$

단,  $r$ 은 장기이윤율,  $R$ 은 생산물체계에서의 잉여율,  $w$ 는 스라파가 제시한 척도재(표준상품, standard commodity)로 측정된 임금의 몫(share).

(4) 생산수준이란 생산물의 종류와 양인데 이것을 설명하는 요인은 인구, 관습에 의한 계층별 소비패턴과 같은 것이 포함되며, 분배관계란 임금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생존임금(subsistence wage)에 의해서 설명되는데 생존임금을 구성하는 임금재의 조합(wage basket)은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관습과 인구에 의해서 설명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신고전학파에서 시장참여자의 개인선택에 의한 설명과 대비된다.

(5) 식의 도출에 대해서는 홍기현(2002)를 참조. 이 식은 물론 고정자본이 있거나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의 수정을 해야 하며, 결합생산물(joint production)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는 않는다. 고전학파적 생산가격이론에 대한 엄밀한 설명은 Okisio(2001)를 참조.

위 식에 따르면 이윤율과 임금은 직선적 역관계를 가지며, 만약 경제전체의 잉여율은 10%인데, 임금의 몫이 50%를 차지한다면 이윤율은 5%가 된다. (2.1)식을 스라파의 기본방정식(Fundamental Sraffian theorem)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 식을 통해 이윤은 생산체계에서 남는 잉여 중에서 임금을 지불하고 남는 몫이라는 스라파의 설명은 고전학파의 분배이론, 즉 임금생존비설과 이윤잔여설과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학파의 이윤잔여설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사적 문제제기가 있었다. 하나는 맑스주의적 비판이다. 이 입장에서는 고전학파는 이윤의 원천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비판을 하면서, 노동가치설을 고수하여 이윤은 착취된 노동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체계에서 잉여가 발생하는 원인은 노동이 그 기여보다 적게 수취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너무 단순한 설명이다. 홍기현(1994)에서 지적하듯이, 생산체계에서 잉여가 발생하는 원인은 분업의 이익, 경영조직의 경쟁력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며, 단순히 노동이 추가되어 생산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하여 기술과 조직이라는 측면을 사상하고 모두 노동의 기여로 생각하는 것은 자본주의생산의 특성을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신고전파적 입장에서의 비판이다. 시장경제에서의 장기균형상태에서는 시장 거래를 통해서 투입되는 모든 생산요소가 그 기여분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므로 잔여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즉 토지이든, 노동이든, 자본이든 각각의 기여에 따라 보수를 받게 되면 지대, 임금, 이윤 또는 이자로 부가가치를 나누어 갖게 되므로,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를 동일한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며, 평균이윤율 또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윤을 단기상태에서 우월한 생산능력의 대가로 발생할 뿐이라는 것이다. 완전경쟁 상태를 상정하면 가상적으로 이러한 상태를 상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가상적 상태를 분배이론의 출발점으로 하여 현실 분석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 3. 신고전학파적 분배이론의 진화와 그 의미

#### 3.1. 한계혁명과 신고전학파 분배이론

1870년대경까지 영국 고전파 경제학이 선도적 경제사상으로 역할을 해온데 대해서, 1870년대를 시발점으로 시장경제를 개인의 합리적 선택행동에 근거하여 설명하

려는 경제분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을 변화를 경제학사에서는 한계혁명(marginal revolution)이라고 하는데, 급격한 변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학의 모습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나타난 신고전학과 분배이론의 특성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행동으로부터 전체 경제적 결과를 도출하려는 시도로서, 선택행동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미적분법을 사용하였고 전체 결과를 일관되게 설명하기 위해서 방정식 체계를 사용했다.

고전파의 노동가치론과 생산비설과 달리, 효용가치론과 수요공급설에 기반을 둔 신고전파적 이론은 시장 가격의 하나로서 분배변수를 설명하게 되는데, 이러한 분배이론은 189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개발된다. 한계분석을 적용하여 분배이론을 선도적으로 개발한 학자는 미국의 클라크(John Bates Clark)다. 그는 1880년대에 경제학 전문지에 게재한 일련의 논문을 집대성하여 『부의 분배(The Distribution of Wealth, 1899)』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클라크는 한계생산성의 개념을 모든 생산요소에 적용하여, 자본에 대한 이자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으로 노동에 대한 보수인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지대를 제외하면 경제전체의 소득 전체는 이자와 임금의 합으로 이루어지므로 다음과 같은 정식이 성립된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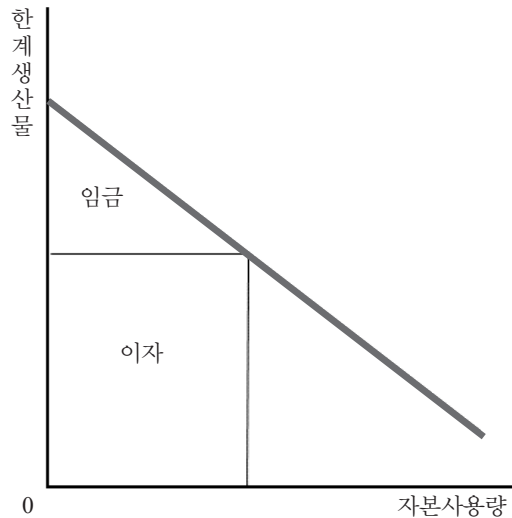
$$(3.1) \quad Y = MP_K \cdot K + MP_L \cdot L$$

단  $Y$ 는 소득,  $K$ 는 자본사용량,  $L$ 은 노동사용량,  $MP$ 는 각각의 한계생산성.

식 (3.1)는 수평축을 요소사용량으로, 수직축을 한계생산성으로 나타낼 때, <그림 2>로 표현된다.

<그림 2>에서 우하향하는 선은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나타내므로 수직축으로 자본 사용량이 주어진다면,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정해지는 사각형은 자본에 대한 이자가 된다. 따라서 한계생산성 이하의 면적으로 나타내진 삼각형은 소득 중 자본이자 아닌 임금 부분을 나타낸다. 똑같은 방식으로 우하향선이 노동의 한계생산성이라면 사각형은 임금을, 삼각형은 이자를 나타내고, 임금과 이자가 합쳐져서 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이 그림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하나는 자본 또는 노동의 수량이 어떻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인데, 경제전체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자본 또



〈그림 2〉 클라크의 한계생산성 분배이론

는 노동의 부존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요소 시장에서는 분배변수에 반응하는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있다고 해도 연립방정식 체계의 기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경제에서 다양한 자본재나 다양한 종류의 노동, 나아가 토지나 에너지와 같이 다양한 본원적 투입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한계생산성이 가격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은 변화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경제전체적으로 모든 생산요소가 각각의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그 보수가 정해진다고 할 때, 소득 전체가 (3.1) 식처럼 한계생산성과 사용량의 합으로 정확하게 구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는 생산물의 소진(exhaustion)이라는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클라크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으나 후대의 경제학자인 빅셀(Knut Wicksell)이 이를 입증하였다. 즉 장기균형상태가 존재하려면 평균비용이 초저인 점에서 조업하므로 이 상태는 규모에 따른 수익일정(constant returns to scale) 상태가 되고, 이때 수학적으로 이미 워스티드(P.H. Wicksteed)가 밝혔듯이 소득이 전체 생산물의 각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물의 합과 같은 상태라는 것이다.<sup>(6)</sup>

(6) 이 때문에 생산물의 소진명제가 빅셀과 워스티드에 의해서 입증되었다고 말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워스티드에 의해서 문제가 명확하게 제시되고 빅셀에 의해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Blaug(1985, pp. 454) 참조. 이러한 문제해결방식에서는 기업가의 역할은 관리능력으로서, 이 능력 또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요소로서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평가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업이 조직으로서 특정한 생산역량을 갖고 있을 때 어떤 특

클라크의 한계생산력설에 대해서 동시대의 뵘바베르크(Eugen von Boehm-Bawerk)는 1889년에 발간된 『자본과 이자(Kapital and Kapitalzins)』라는 책에서 본원적 투입요소가 아닌 자본의 양 자체가 생산성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판하고, 시간투입에 주목하면서 대안적인 자본 및 이자이론을 제시한다. 오스트리아자본이론(the Austrian capital theory)으로 정식화된 뵘바베르크의 이자이론에서는 자본은 투입된 노동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누적된 요소이므로 양 자체보다는 어느 정도 투입 후 산출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생산기간(production period)이 이자율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생산물의 양이  $Y$ , 노동투입량이  $L$ , 투입 후 걸리는 시간이  $t$ 라고 하고 생산량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면,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된다.

$$(3.2) \quad Y = Lf(t), f'(t) > 0, f''(t) < 0$$

이 경우 장기균형에서 이자율( $r$ )은 생산기간에는 반비례하고 생산기간에 대한 1차도함수에는 비례하도록 결정된다.

$$(3.3) \quad r = f'(t)/f(t)$$

이 식을 최초로 도출해낸 학자는 한계혁명의 추진자였던 영국의 제본스(W.S. Jevons)였으므로 “제본스의 공식”(the Jevonian formula)이라고 불린다.<sup>(7)</sup> 이 식에 따르면 이자율은 생산기간( $t$ )가 길어질수록 하락하게 된다.

생산기간으로 측정되는 투입 시점과 산출 시점과의 시간적 차이를 생산의 우회도(roundaboutness)라고 하는데, 뵘바베르크는 자본을 사용한 생산의 특징을 시간적 기다림이 긴 우회적 생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우회적 생산의 이익이 이자발생의 1차적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피셔(Irving Fisher)는 1907년에 발간된 『이자율(The Rate of Interest)』에서 이자율은 시간에 대한 할인이므로 경제주체가 미래 제공되는 미래재화(future goods)보다 당장 소비할 수 있는 현재재(present goods)보다 더 선호하는

정 생산요소로서 환원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7) W.S. Jevons,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1871, p.246.

행태가 양의 이자율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부분균형모형을 제시했다. 이를 후대의 경제학자들은 양의 시간선호(positive time-preference)라고 부른다. 즉 피셔에 따르면 이자율은 동일한 재화가  $(t+1)$ 기에 제공되는 경우의 한계효용에 비해서  $t$ 기에 제공되는 경우의 한계효용이 더 크므로, 자금을 빌려주는 대부자가 차입하는 사람에게 시간에 따른 할증료를 물리게 되고, 그 비율만큼 양의 이자율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홍기현(1996)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뵘바베르크와 피셔 간의 양의 이자율을 가져오는 기본 요인에 대한 논쟁을 정리해보면 자본의 사용과 제공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균형분석을 하면 두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둘 다 부분적으로 맞는 주장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균형상태에서는 이자율=시간선호에 따른 할인율=투자의 한계수익율(marginal rate of return on investment)라는 식이 성립하므로, 양자의 논쟁은 균형식의 한 쪽 측면만을 강조한 셈이 된다.

이러한 논쟁의 진행과 더불어 신고전학과 이자이론은 한계분석을 사용한 수요공급설로서 체계를 잡아가게 되는데, 그 결과 고전학파적인 생산의 순환과정에 주목하는 이론체계와는 점점 차별화되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최종적인 결과는 1930년대 이후 분명해진다.

여기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고전학파의 차액지대설과 신고전학파의 한계생산성 분배이론과의 유사성이다. 고전학파 학자 리카도가 정립한 생산성 차이에 의한 지대수취의 원리, 즉 차액지대설과 같은 방식을 신고전학파에서는 모든 생산요소에 대해서 적용하여 한계생산성 분배원리를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고전학파에서도 수요공급설을 채택하고 있다는 Samuel Hollander(1987)의 해석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고전학파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생산량이 결정되는 것을 인정하지만, 수요공급의 원리가 이윤을 직접적으로 결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대를 제외한 부가가치 중에서 생존임금을 제외한 부분이 이윤이 된다는 이윤잔여설을 기본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이에 비해서 신고전학파에서는 우수한 생산 능력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윤을 설명하는 방식이 차액지대를 설명하는 방식과 같을 뿐인데, 이러한 유사성은 기술적 유사성(technical similarity)이지 개념적 유사성은 아니며 오히려 개념적인 차이(conceptual difference)를 보여주고 있다. 차액지대와 경제적 이윤의 기술적 유사성과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말미에 있는 〈보론〉을 통해서 설명한다.



### 3.2. 1930년대 전후의 신고전파 이자이론의 변화와 이론사적 의미

1870년대 이후 신고전파 이자이론이 개발되면서 이윤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졌다. 즉, 이자를 우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균형상태에서는 이자율=정상이자율(normal rate of profit)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이자율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난 뒤,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은 특정 기업의 우수한 생산능력에 대한 대가로서 일종의 지대와 같은 범주로 분석하는 이론적 경향이 뚜렷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초까지는 분석대상 면에서 고전학과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두 가지 측면이 유지되고 있었다.

하나의 장기균형상태를 이론 분석의 중심대상으로 생각함으로써 경쟁을 통해서 단일이자율(the single rate of interest)이 형성된다는 전제 아래 자본소득을 단일이자율로 설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고전학과 이자이론 개발을 선도한 클라크, 뵘바베르크, 피셔의 초기 저작에는 모두 이러한 시도가 지속된다. 즉 클라크의 자본의 한계생산성, 뵘바베르크의 생산의 우회도, 피셔의 시간선택에 따른 할인율은 모두 단일이자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들이다.

다른 하나는 단일이자율을 중심적 개념으로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소득을 발생시키는 ‘자본’이라는 생산요소에 대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실제적 정당성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즉 클라크는 자본의 한계적 기여 때문에, 뵘바베르크는 축적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그리고 피셔는 시간에 대한 할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생기므로 시장경제에서 이자가 수취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자본을 경제전체적 시각에서 축적된 생산요소로 간주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이자로 파악하는 접근은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신고전파적 과학방법론과 과연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질문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가장 먼저 오스트리아학파의 사조를 이어받은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에서 나타났다. 하이에크는 1928년 독일어로 발표된 논문에서 ‘시점 간 가격의 균형체계’(das Intertemporale Gleichgewichtssystem der Preise)라는 개념을 정립하고, 이 일반균형적 가격체계에서 여러 상품의 시점 간 가격의 할인비율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시간 간 할인율은 (상품의 개수 - 1) 만큼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sup>(8)</sup>

(8) 하이에크의 시점 간 가격체계가 다양한 할인율이 존재하는 일반균형모형을 최초로 제시한 것이란 것을 밝힌 논문은 Milgate(1979)이다. 그런데, 미국의 피셔가 한 상품이 거래시점이



이러한 시점 간 일반균형가격체계에 관한 이론은 1950년대 신고전학과 가격이론의 표준적인 애로우-드브루(Arrow-Debreu)모형을 통해 완성되는데, 이 단기균형모형에서는 다수의 할인율이 존재하게 된다. 이 모형의 이론적 구조는 <도식 2>와 같이, 기술, 요소부존량, 시간선호를 주어진 외생변수라고 할 때 생산물과 생산요소의 거래량과 가격이 동시에 정해지는 것이 된다.

#### <도식 2> 신고전파적 이론체계

기술, 부존자원, (시간)선호  $\Rightarrow$  (시점별) 거래량과 (시점간) 상대가격

위와 같은 이론체계는 <도식 1>에서 제시된 고전파적 이론체계와 확연하게 구별된다. 즉 고전파에서는 가격과 분배변수가 별개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한 반면, 신고전학과에서는 모든 가격은 거래량과 동시에 결정된다고 생각한 점이다. 가격과 거래량만을 생각하면 신고전학파의 이론이 설명 범위가 더 포괄적인 이론이고, 고전파는 수익률이 동일한 특수한 경우만을 설명하는 이론인 것처럼 해석될 수도 있지만, 시장경제에서 분배변수의 설명이 상품가격과 동일하게 결정되는가 아닌가는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서로 다른 이론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1960년대 소위 자본논쟁(the capital controversy)라는 이론적 논쟁을 통해서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처음에는 신고전학파적인 이론에서 집계적 생산함수(aggregate production function)의 한 요소로서 자본을 한 변수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조안 로빈슨(Joan Robinson)으로부터 비판이 제기된 이후 자본의 측정가능성을 둘러싸고 논쟁이 촉발되었다. 그러나 수요공급설적인 이론체계에서 단일수익률을 전제하여 그에 상응하는 ‘집계적 자본(aggregate capital)’이라는 변수를 사용하는 것은 내생변수의 비율이 일정한 균제상태(steady-state)와 같은 특수한 상태가 아닌 한 불가능하며 신고전학과

---

다수 있을 때 시점 간 할인율을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1907년의 책에서 이미 밝혔으므로, 피셔와 하이에크의 업적을 결합하면 1950년대 이후 신고전학과 가격이론의 표준 모형이 된 애로우-드브루(Arrow-Debreu)의 모형은 1930년대에 이미 제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균형의 존재조건과 안정성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점 간 다수재화모형의 일반균형체계는 1950년대에 정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表 1〉 이자이론의 시대별 흐름 구분

시기별 구분	고전학파(1776~1870)	초기 신고전학파 (1870~1930)	현대 신고전학파 (1930년대 이후)
가격이론	생산비설	수요공급설	
분석대상	장기균형(단일이자율)		단기균형(복수 이자율)
이윤/이자이론	이윤잔여설	한계생산성과 시간할인	
이윤과 이자의 관계	이자 <sup>9</sup> 는 이윤의 일부	비용으로서 이자를 설명한 후 경제적 이윤은 준지대로 취급	
정당성 근거	이윤은 생산과정의 잉여로 조직에 귀속	상대적 희소성의 결과로서 요소 소유자에게 귀속	

가격이론에서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결국 이 논쟁은 경제분석 대상으로서 여러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동일한 장기균형상태를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로 귀착되었다.<sup>(9)</sup>

이러한 논쟁의 결과 1970년대 이후에는 신고전학파적 수요공급설에서 초기 신고전학파 경제학에서 유지되던 두 가지 분석방법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즉 하나는 단일이자율을 중심적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 이자율도 다른 가격변수와 다를 것이 없으므로 집계적 자본에 대한 보수로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굳이 상품 가격과 다른 방식으로 정당화할 필요성이 없어졌다.<sup>(10)</sup> 말하자면, 모든 상품의 가격은 상대적 희소성에 의해서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독점적 요인이 없는 경쟁시장에서 정해지는 가격은 정당한 것이 된다. 또한 독점적 요인이라 하더라도 기술혁신의 결과 시장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자연독점의 경우 소득 발생 자체가 문제시될 이유는 없어진다.

이상 설명된 주요 이자이론의 흐름을 표로 정리하면 〈表 1〉과 같다.

〈表 1〉에서 보듯이 고전학파에서 순환적 생산과정의 잉여로서 설명되던 이윤은 장기균형에서 모든 산업부문에서 경쟁에 의해서 단일이윤율로 수렴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되었으나, 1870년대 이후 한계혁명을 거치면서 가격이론이 수요공급설로 변화하고 가격이 희소성에 의해서 설명된다. 이에 따라 이자도 자본의 상대적 희소

(9) 논쟁의 진행과정과 이론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홍기현(1991), Hong(2015)를 참조.

(10) 모든 상품의 가격이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1재화 경제에서 성립하는 경제원리가 전체 경제분석에서도 적용된다는 역설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시카고학파적인 합리적 대가설이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성의 대가로서 생산자의 요소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는 한계생산성으로 요소제공자의 측면에서는 시간에 대한 할인으로서 설명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이자를 주요 요소비용의 하나로 설명하게 되었고, 단기균형을 설명하는 수요공급설에서는 굳이 이자를 별도의 원리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서 단일이윤율도 1차적 분석대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 때문에 이자 이상의 보수를 발생하는 경제적 이윤은 일종의 준지대로서 우수한 생산능력의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장기적으로는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로 말미암아 생산과정과 기업조직 내부에서 어떻게 이윤을 창출하는 능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게 되고, 기업과 생산과정은 일종의 블랙박스(black box)로 남게 된다.

#### 4. 다양한 이윤이론과 그 함의

##### 4.1. 신고전학파의 범위를 넓히는 기여: 슈페터와 나이트

신고전학파의 이론적 전통을 따르면서도 적극적으로 이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슈페터와 나이트의 업적이 대표적이다. 먼저 슈페터(J.A. Schumpeter)는 그의 새로운 이론체계를 알리는 책인 『경제발전의 이론(*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에서 왈라스적 균형이 성립하는 ‘순환적 흐름’(circular flow)에서는 경제성장이 사라지므로 이윤뿐만 아니라 이자도 0이 된다고 전제하고, 혁신(innovation)이 발생해야만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이 가능하고 이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sup>(11)</sup> 혁신이란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원료 등이 결합된 결과로서 기업가(entrepreneur)의 창의적 노력에 의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과정이다. 이러한 혁신의 결과 기업은 새로운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므로 독점이윤이 발생하고 이 기술혁신에 의한 독점이윤이 바로 이윤의 본질이다. 이 과정에서 ‘순환적 흐름’에서 기존 사업에 자본이 묶여져 있으므로 새로운 투자는 은행의 신용창출에 의해서 가능하고, 혁신적 투자에 신용을 대부한 결과 이윤의 일부로서 이자가 지급되게 된다.

(11) 시장을 과정(process)로서 분석하려는 오스트리아학과 전통에서 슈페터는 균형이론과 불균형 분석을 대비시키면서 이론체계를 구축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비해서, 본격적인 오스트리아학파인 하이에크는 균형화과정을 더 중시한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ong(1992)의 참조.

“기업가적 이윤이란 기업의 항구적 요소에 있어서 차별적 우위에 대한 대가와 같은 지대가 아니며, 어떻게 자본을 정의하든 자본에 대한 대가도 아니다. 따라서 현실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윤을 균등화의 경향이 있다고 말할 이유도 없다. … (중략) … 그것은 분명히 단순히 남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임금이 노동자가 ‘생산’한 것의 가치적 표현이라는 같은 의미에서 기업가가 생산에 기여한 가치적 표현이다[Schumpeter(1934, pp. 153)].”

이에 따라 슈페터는 이자에 대해서도 “발전의 산물로서 위대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이자는 이윤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어떤 구체적 재화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다”[Schumpeter(1934, pp. 175)]라고 말하고 있다.

슈페터가 기술혁신에 의한 이윤발생을 강조한데 비해서 시카고학파의 사상적 원류인 나이트(Frank H. Knight)는 불확실성의 대가로서 이윤에 대해서 주목한다.<sup>(12)</sup> 1921년에 발간된 저서 『위험, 불확실성 및 이윤(*Risk, Uncertainty, and Profit*)』라는 책에서 나이트는 사전적으로 확률적 예측이 가능한 위험(risk)과 예측이 아예 불가능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구분한다.

“측정가능한 불확실성, 즉 우리가 사용할 용어로서 고유한 의미의 ‘위험’은 측정불가능한 것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으며, 사실상 불확실성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불확실성’이란 용어를 비정량적인 유형의 경우에 한정할 것이다. 이윤에 관한 타당한 이론의 기반을 형성하고, 실제적 경쟁이 이론적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불확실성이다[Knight(1921, pp.20)].”

나이트는 시장경제에서 실제 매출액을 예상하기는 힘들므로, 계약된 금액에 의해서 각종 비용을 지불하고 남는 이윤을 발생시키는 데는 불확실성에 따른 부담이 생기고 이러한 부담을 가진 기업가에게 돌아가는 몫이 이윤이라고 생각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이 생기는 기본적인 이유는 기업내부의 생산과정에서 독자적인 기업가의 역할 때문이다. 기업의 생산과정은 다양한 분업에 의한 특화(specialization)를 통해서 일정할 역할을 각 참여자(agent) 및 생산요소에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특화과정에서 이미 알려진 요소와 그 기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평가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되고, 그 대가는 계약적 소득(contract income)으로서 요

(12) 나이트의 기업 및 이윤이론에 대해서 정리된 글로서는 정기화·김태기(1994), pp.386-89, Blaug(1985), pp.462-63을 참조.

소기여자에게 귀속가능(imputable)하다. 이에 비해서 시장에서 평가되지 못하는 요소의 사용은 기업가의 판단(judgement)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판단은 계산(calculation)의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견(opinion)에 따라 이루어지는 속성을 지닌다. 제품에 대한 가격을 매기는 문제(pricing)도 마찬가지로 속성을 가진다. 비용과 매출에 관련된 불확실한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이 기업가에게 부여되며, 이러한 판단이 결과적으로 비용 이상의 매출을 남기는데 성공한다면 그 잔여소득(residual)은 기업가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는 특정한 요소에 대한 기여로 귀속불가능(unimputable)하기 때문이다. 나이트는 이러한 분석의 결과 이윤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의 대가이며, 경쟁을 통해서 사라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직에서는 집중화된 통제 아래 있는 수많은 개인들에게 속한 자원들을 위치시키는 책임의 집중을 하게 된다.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생산에 있어서 인간의 기여는 결정을 하고, 통제를 시행하는데 있지만, 결정의 결과들과 결합되지 않는 한 이 통제는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책임 있는 결정이란 사물들이라기보다 인간과 관련된 것이며, 궁극적인 관리자란 조직을 계획하고, 기능을 설계하며, 기능들에 맞추어 인간을 선택하면서 시장에서 다른 모든 참여자들과 경쟁하면서 그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궁극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단 한 가지 가능한 보상은 경쟁이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사물의 서비스에 대해서 다른 참여자들과 경쟁하면서 성립된 효율에 따라 보수가 지급된 이후 남게 되는 생산물의 잔량(residuum)뿐이다. 이러한 잔량이 바로 이윤이다. ... (중략) ... 이윤은 기업의 소유자와 전체 소득과 구별되는 귀속불가능한 소득이다”[Knight(1921, pp. 308)].

이 인용문에서 나이트는 경쟁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해서 주로 분석하면서 소홀하게 취급되었던 조직내부 문제를 기업가의 역할과 연결하면서 이윤발생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경쟁균형에서도 기업가의 역할에 따라 이윤에 발생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윤은 특정 요소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범위한 의미에서 신고전학과 전통을 따르면서도 이윤의 본질에 대해서 통찰력 있는 설명을 한 두 학자, 슈페터와 나이트를 비교해보면 흥미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발견된다. 공통점으로서 슈페터와 나이트 모두 기업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의 담당자인 기업이 이윤최대화라는 목적을 가진 조직으로서 가격과 생산량에 대한 계산을 담당하는 것으로 단순화된 신고전파적 생산함수에서 기업가

의 역할은 관리노동이며 그에 대한 보수는 관리노동에 대한 기여분으로 주어질 것이다. 이에 비해 스펀터는 기업가가 기존 생산함수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새로운 혁신을 통해 독점이윤을 창출하는 존재로, 나이트는 시장에서 평가될 수 없는 조직 내 분업의 조정자로서 불확실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있다.

기업가의 역할이 강조된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론체계 면에서 보면 두 사람의 분석결과는 사뭇 다르다. 즉 스펀터는 혁신의 결과를 이윤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윤은 불균형 상태에서만 주어진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비해서, 나이트는 균형상태에서도 불확실성에 의해서 이윤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 4.2. 자원기반이론에 따른 이윤 설명

신고전학과에서 생산함수로 표시된 기업과 기업가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직 내외부의 인적 네트워크(human network)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기업이론이 경영학의 자원기반이론(resource-based theory)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자원기반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확보하는 핵심적 요소는 기업내부의 잠재적 자원을 외부적 기회와 어떻게 연결하는가 하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서 볼 때 기업의 경쟁우위를 가져오는 자원은 가치 있고 희소하지만 완전하게 모방하기는 힘들고 대체불가능한 요소여야 한다. 모방하기 힘들고 대체불가능한 희소 자원은 대체로 이질적이면서도 이동불가능한 요소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무형자산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sup>(14)</sup> 즉, 유형 자산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구입가능하거나 모방하여 전수가능(transferable)할 가능성이 크지만, 무형자산은 전수되기 힘들다.

자원기반이론에서는 기업의 핵심역량이 기업 내부의 자원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대한 기업가의 판단에 따라 달성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상황은 사실상 불확실한 요소가 큰 경우 더 적용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예를 들면 홍기현·이근(1998)에

(13) 기업이론의 일반적 소개에 대해서는 김용열(2002), 박홍열·신건철(2004) 참조. 자원기반이론의 개발자에 소개는 Barney(1991)을 참조. 자원기반이론과 유사한 진화론적 기업이론에 대해서는 홍기현·이근(1998) 참조.

(14) Barney(1991)에 따르면 기업의 자산에는 부동산, 원료, 공장과 같이 유형 자산(tangible assets)과 조직의 루틴과 실행, 평판, 문화와 지식, 고객관계와 같은 무형 자산(intangible assets)이 있는데, 유형 자산은 시장 거래를 통해서 전수 가능하지만, 무형자산은 완전히 전수되기는 어렵다.



서 지적하듯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거나 기술혁신을 하려고 할 경우 자원의 동원방법을 달리해야만 할 가능성이 크고, 기존의 지식으로는 그 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기업은 여러 명의 사람이 팀을 이루어 생산하는 조직이므로, 조직의 내부적 관계에 따라 경영방법을 포함한 기술적 상태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이러한 기업에 특정된(firm-specific) 지식은 쉽게 판매되거나 복사되기 어려워진다. 경쟁우위를 가져오는 인력배치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정확한 판단력을 요하는 관리업무를 A유형의 사람에게 맡기고 적극적인 인간관계능력을 요하는 영업업무를 B유형의 사람에게 맡겨서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구현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하자. 직원이 2명 있을 경우에 일반적인 경영학적 지식을 통해 A, B 두 명에게 관리와 영업을 맡기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직원이 두 배가 되어 4명이 되었을 경우 A유형의 사람 2명, A1과 A2를 관리팀에, B유형의 사람 2명, B1과 B2를 영업팀에 배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 추가된 A2와 B2의 경우 특별한 직업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람들과 현장에서 일하면서 지식을 습득(on-the-job learning)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지식습득 면에서의 비용 절감은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기존 A1과 B1의 직원은 근무 경력에 따라 약간의 보수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새로운 직원에 대한 훈련비용 절감분을 자신의 보수로 요구하기는 어렵다. 즉 조직 규모 확대에 따른 절대적 우위(absolute advantage)의 발생 분은 조직의 대가로 남는 몫(residual)이 되고 이윤의 원천이 된다.

자원기반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이윤이란 결국 기업의 소유한 자원의 적절한 사용에 의해서 조직으로서 기업에 특정한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을 개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핵심역량의 대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몫은 시장 전체가 균형 상태라고 하더라도 성공적인 기업에 대해 발생가능하고 지속가능하게 된다.

#### 4.3. 다양한 이윤이론의 방법론적 함의

고전학파의 균형이론체계에서 생산과정의 잉여로서 이윤을 설명하려던 시도는 신고전학파 균형이론체계에서 자본 희소성의 대가로 이윤 또는 이자를 설명하게 되면서 시장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인 경제적 이윤은 우수한 생산능력의 대가로서 단기

에서는 존재하지만 장기에서는 사라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신고전학과 이론체계의 전통 속에서 스펀티는 균형을 파괴하면서 혁신을 통해서 독점이윤이 발생한다는 식으로 이윤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그의 이론은 결국 균형에서는 이윤이 사라지는 것으로 되므로 기업의 내부조직 문제를 이론의 중심 요소로 자리잡게 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생각된다.

기업조직의 문제를 이론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framework)를 개발하려면, 나이트가 생각하듯이 불확실성을 직면한 기업가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즉 기업가는 정형화된 형태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기업 내부의 기능(function)들에 대해서 분업체계 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이익을 남기는 판단력을 갖고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창출된 이윤은 장기균형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는데, 이는 완전경쟁 가정을 완화하거나 폐기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원기반이론에서도 기업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기업 내부의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핵심역량을 확보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이렇게 확보된 핵심역량은 다른 사람에게 쉽게 판매될 수도 모방될 수도 없게 된다.

만약 이러한 기업조직 내부의 문제가 이론체계의 핵심 요소로 들어간다면 가격이론체계는 상당히 변화하게 될 것이다. 고전학과 이론체계에서는 이 문제는 가격이론과는 별개로 다른 한 요소로 취급될 수 있는 개방성이 있다고 Garegnani(1984)와 같은 스라파주의자(Sraffian)에 의해서 주장되고 있다. 반면 신고전학과 이론체계에서는 기업조직 내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기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기업특정적(firm-specific) 요소가 무엇이며 이러한 요소의 존재가 왜 발생하는지를 분명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오히려 모든 요소가 거래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이론화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된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조직 내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두 이론 모두 상당한 한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잘 알려진 가격이론에서는 장기균형에서도 경제적 이윤이 존재할 가능성을 제시한 불완전경쟁(imperfect competition) 모형이 기업내부의 문제를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생각된다.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소개되는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모형에서는 완전경쟁가정들에서 하나의 가정을 완화하여 제품의 차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제품이 어느 정도 시장에 지배력이 있는 경우 평균비용함수가 우하향하는 국면에서 가격과 한계수입(marginal revenue)이



만나는 점에서 이윤최대화 생산량이 정해지고, 이 가격이 평균비용과 같다면 경제적 이윤이 존재하면서 장기균형이 이루어진다. 나아가 제품 차별화를 가져오게 된 요인이 제품혁신(product innovation)에 의해서든 기업가의 적절한 자원사용에 따른 결과이든 개별 기업마다 고유한 특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슈페터, 나이트, 자원기반이론 등에서 제시된 기업의 특성과 양립가능한(compatible) 모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기업 간, 제품 간 차별성을 중심 모형으로 삼아 이론전개를 시도하려는 소위 1930년대의 “불완전경쟁혁명(imperfect competition revolution)”이란 사건(event)은 왜 경제학계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미완의 혁명 또는 실패한 혁명(revolution that failed)으로 끝나게 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전학과 이론체계가 더 일반적이어서 다른 이론체계를 압도했다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즉 신고전학과 경제학에서는 완전경쟁을 전제로 하여 불완전경쟁을 차후에 설명하는 방식으로 모든 이론을 단계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Friedman(1953)이 생각하듯이 마치 물리학에서 진공상태를 전제하고 운동법칙을 설명하고 나서 마찰력을 도입하는 것이 이론체계의 일관성과 효과적 전달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현실적으로 기업의 경쟁과 운영과정이 제품차별화, 지속적 혁신, 고민스러운 역할배치의 수행과 같은 문제를 끊임없이 하는 과정이라면 완전경쟁이 경제에서 가장 중심적 이론으로 하는 것이 과학탐구의 절차상 타당하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인가 연구의 성과를 비교하지 않고서 아무도 사전에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이런 문제는 이론의 밑바탕에 있는 메타과학방법론(meta-scientific methodology)의 선택의 문제가 된다. 완전경쟁상태에서 제품의 차별성에 관한 가정 하나를 바꾼 것 같이 보이는 불완전경쟁모형이 중심이론이 되지 못한 것은 완전경쟁에 관한 가정의 비현실성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독점적 경쟁모형에서와 같이 완전경쟁가정을 하나씩 완화하면서 순차적으로 현실적 문제를 분석하는 형태로 순차적인(nested) 방식으로 현실을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실제 독과점 기업의 행태를 보면 완전경쟁이라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행동방식이 다른 경우가 있다. Mongine(1992)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1930~40년대에 걸쳐 일어난 독과점기업의 가격설정(pricing)에 관한 이론들을 보면 최적화(optimization)를 전제하지 않고 만족화(satisficing) 가설을 사용하여 마크업 가격(mark-up pricing)을 전제하는 연구도 많이 나타났다. 즉 필자(2007)의 연구에서

〈表 2〉 이윤이론의 과학방법론적 위치

	더 귀납주의적	더 연역주의적
더 개인주의적	나이트의 불확실성이론	신고전학과 이윤이론
더 전체주의적	자원기반이론	고전학과 이윤잔여설

밝혔듯이 불완전경쟁이 중심이론이 되기 힘든 이유는 이 경우 신고전과 과학방법론의 중핵(hard core)에 해당되는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목표로 최적화하는 수단을 찾는다.”는 명제에 배치(背馳)되기 때문이다.

물론 개인의 행동 동기는 유인(incentive)에 반응하는 부분과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규범(norm)을 지키려는 부분이 있고, 이러한 복합적 동기는 기업조직 내의 집단 동학(group dynamics) 속에서 다양한 행동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기업에서는 유인체계를 적절히 쓰면서도 공동목표를 설정하여 규범을 설정함으로써 지나친 개인적 이익추구가 효과적인 분업체계를 파괴하는 것을 방지하는 관리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윤창출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윤창출체계의 지속가능성은 바로 앞에서 말한 생산과정에서 잉여가 창출될 가능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sup>(15)</sup>

지금까지 설명된 고전학과, 신고전학과 다양한 이윤이론의 과학방법론적 입장을 정리하면 〈表 2〉와 같다.

〈表 2〉에서는 분석방법이 상대적으로 귀납적(inductive)인가 연역적(deductive)인가라는 것을 한 가지 기준으로 하고, 분석단위를 개별 경제주체로 하는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와 경제 전체로 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methodological holism)이란 다른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가지 분류에 따라 해당되는 이윤이론의 입지를 위치시켰다.

이 표에 따르면 신고전학과 이윤이론은 연역적-개인주의적이며, 이에 비해 고전학파는 연역적이지만 계층별 소득분배에 관심이 있는 좀 더 전체주의적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 또한 나이트가 이윤이 기업가가 불확실성 하에서 잘 판단한 대가로 보는 견해는 개인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신고전학파에 비해서는 좀 더 귀납적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경영학적 자원기반이론은 기업 내부이지만 전체 상황을 염두에 둔 분

(15) 이러한 측면은 효율성임금(efficiency wage)이론에서 어느 정도 신고전파적 경제학에서도 수용되고 있으나, 동료관계를 중시하는 사회학적 기업이론과 같이 신고전파적 방법론을 벗어나는 다양한 기업이론이 존재한다.

업체계를 생각하므로 나이트에 비해서 좀 더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입지는 상대적인 것이라서 다른 이론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차이 정도가 정확하게 칸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이미 밝혔듯이 나이트의 이윤이론은 경영학적 자원기반이론과 거의 같은데 비해서, 신고전학과와 고전학파의 차이는 그 보다는 더 클 것이다.<sup>(16)</sup> 물론 경제학적 이론이나 경영학적 이론이나 모두 다른 사회학이나 정치학적 접근에 비해서 더 개인주의적이고 더 연역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각 이론의 위치를 이해해야 한다.

#### 4.4. 화폐적 이자이론의 등장과 이윤

지금까지 논의된 이자이론은 소위 실물적 이자이론이다. 실물적이란 말은 경제활동에서 생산과 소비와 직접 관련된 변수인 기술, 선호, 부존자원과 같은 변수에 의해서 설명된다는 뜻이다.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생산과정에서 잉여가 남은 이유를 기술과 분배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잉여 중의 남은 몫이 이윤이며 이자는 그 일부를 수취하는 것으로 설명했으며, 신고전학과에서는 자본의 수요와 공급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자이든 정상 이윤이든 가격변수로서 설명되는 부분은 세 가지 실물 데이터인 기술, 선호, 부존자원으로 설명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의 대부시장에서는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이자율이 명목치(nominal value)로서 계산되므로, 실물적 이자이론에서는 명목이자율을 실질이자율과 물가상승율의 합으로 설명한다.<sup>(17)</sup> 즉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물가상승율.

이러한 설명에서 분배이론과 물가수준에 관한 설명은 분리되어 있는 셈이며, 이는 화폐의 크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물가수준에만 영향을 준다는 화폐의 중립성(neutrality of money)을 전제할 때 가능하다. 그런데 1930년대 세계대공황기에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재정정책을 써서 적극 개입할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영국의 케인즈(John Maynard Keynes)는 화폐의 양이 실질국민

(16) 물론 경제학설사가 중에서 Samuel Hollander(1987)와 같이 고전학파와 신고전학과 모두 시장경제에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분석하려고 한다는 공통점이 더 크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일치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홍기현(1992)를 참조.

(17) 이 문제에 대해서 최초로 본격적으로 탐구한 학자인 미국의 Irving Fisher의 이름을 따서 이 공식을 Fisher's equation이라고 하는데, 이자율과 물가상승율이 충분히 작을 때,  $(1+실질이자율)(1+물가상승율) = (1+명목이자율)$ 의 식을 풀어서 성립하는 근사식이다.

소득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전학과 이래 주된 화폐 이론으로 자리잡아온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을 비판하고 새로운 거시 경제이론을 제안하였다. 케인즈에 따르면 금융시장에서 화폐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이자율은 기본적으로 명목변수이며, 이 명목변수가 국민소득의 크기를 결정할 때 영향을 주게 되므로 명목이자율의 수준이 실물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케인즈는 노동을 비롯한 요소의 수요에 대해서는 신고전학파적인 한계생산력설을 거의 그대로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특별히 가격이론으로서의 실물적 이자 이론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기업가의 장기적 기대(long-term expectation)가 전반적으로 기업의 투자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격 이론에서 제시된 이윤에 대한 설명이 경제전체적으로 적용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sup>(18)</sup> 결과적으로 화폐적 이자이론의 등장은 기업의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창출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적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론체계 면에서도 케인즈의 화폐적 이자이론이 고전학과 생산비 가격체계와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전학과 수요공급설과 부합하는 것인지 한 쪽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스라파주의자들은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은 고전학과 가격이론체계에서 주어진 생산수준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서로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신고전학파적 전통을 따르는 거시경제학에서는 시장경제의 마찰적 요인에 의해서 실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신고전학과 가격이론의 확대로 케인즈 경제학의 미시적 기초(micro-foundation)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19)</sup> 이러한 이론적 탐구의 과정에서 기업 내부에서 이윤창출을 위해서 시도하는 각종 행동들이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동인(動因)이라면, 금융시장의 영향이 어떻게 이윤창출과정

(18) 케인즈는 장기적으로 자본이 축적되면 수익성이 높은 투자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는 감소하여 0에 가까운 수준이 될 수도 있어서 금리생활자(rentier)들이 안락사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Keynes(1936), p.221).

(19) 박만섭 외(2002)의 제8장에서 박교수도 케인즈의 고용이론을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어떤 이론체계와도 양립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금융시장의 영향이 막대한 현대 경제에서 고전학과 가격체계를 적용할 경우 스라파 본인도 제안하듯이 분배변수로서 이자율이 정책당국에 의해서 조정가능한 것으로 보고 임금이 내생변수로서 생산가격체계에서 상품가격과 동시에 결정된다고 한다면 이윤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영향을 고려한 별도의 이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에 작동할 것인지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전달과정은 너무나 복잡적이어서 자칫 이윤의 본질에 대해서 간과하게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 5. 맺음말: 복합적 현상으로서의 이윤

지금까지 살펴 본 이자 및 이윤학설사를 요약하자면, 이윤과 이자가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 경제의 진화와 함께 인식의 진화가 같이 일어난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 거의 되지 않았던 근대 이전의 경우에는 이윤은 우연적 발견에 의한 차익거래를 통해서, 이자는 순전히 채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수취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다. 산업혁명을 계기로 이윤을 위한 생산이 체계화되면서 고전학파의 생산비 가격체계가 등장하고, 이윤은 생산과정에서 창출되는 잉여(surplus)에 의한 것으로 이자는 타인 자본에 대해서 이윤 배분 과정에서 지불되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실제 경제에서 상품이 다양해지고 각종 자본재와 생산요소들이 시장 거래를 통해서 조달됨에 따라 생산과정에서 잉여가 발생한다는 인식보다는 시장에서의 경쟁과정을 통해서 생산요소는 그 기여도에 따라 지불되므로 장기균형에서 잉여가 발생할 가능성은 사라진다는 관찰방법이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찰방법은 실제 경제를 관찰해서 강화되었다기보다는, 관심사가 시장에서 어떻게 희소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뀌고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학적 방법이 개인선택행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연역적인 이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채택됨에 따라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윤에 관한 견해는 산업화라는 경제적 변화와 함께 분과학문의 정립이라는 학문공동체의 전문화(professionalization)에 의해서 영향을 크게 받았다.<sup>(20)</sup> 즉 1930년대 이후 신고전학과 경제학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생산요소로서 자본의 기여가 한계생산성에 의해서 측정되고 이것이 이자발생의 주요한 요인으로 설

(20) 실제로 1890년대 이후 유럽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미국경제학계에서 경제학계의 전문화가 발생하면서 고전학파에 대체하여 신고전학파적 접근이 영향력이 커지게 된 것이 전문화와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논문으로는 줄고(1998)를 참고하라. 단, 미국의 경우에는 단순히 고전학파가 신고전학파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사회적 변화를 귀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학과 경제학자들이 전문화와 유럽의 앞선 경제학을 도입하는데도 적극적으로 있었음을 유념해야 한다.

명된다고 간주됨에 따라, 기회비용으로서 시장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윤에 대해서는 우수한 생산능력의 대가라는 방식으로 부차적으로 설명되게 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 발생한 세계대공황으로 인해서 화폐시장에서 정해지는 이자율이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준다는 케인스경제학이 등장함에 따라 기업 내부의 이윤발생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사가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더욱이 학문 전체의 전문화가 크게 진전됨에 따라 기업 조직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학에서 주로 탐구하고 경제학에서는 거래비용, 대리인문제 등과 같이 시장거래와 직접 결부되는 문제에 대해서 탐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영학적 조직이론에서 밝혀진 문제들이 시장경제 전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본격적으로 탐구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이론사적 배경을 감안할 때, 이윤에 대해서 잘 이해하려면 이윤발생이 복합적 현상이라는 점을 대전제로 하고 주요한 이론적 시각을 이윤발생의 주요 요인으로 이해하는 상태에서 요인별로 어떤 실제적, 이론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위치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경제학계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논의된 쉘페터의 경제혁신설, 나이트의 불확실성이론, 그리고 경영학적 자원기반이론을 고전파나 신고전파의 기여만큼 중요한 기여로 위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자원기반이론이 쉘페터나 나이트의 이론을 담아낼 수 있는 프레임(frame)이라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 시각을 경제이론의 한 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경우 자본주의의 동학의 출발점이 되는 기업조직 내부의 이윤창출메커니즘을 이론체계에 담아내려면, 그 이론체계는 균형 상태에서도 경제적 이윤이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 논의된 점을 정리하면 <表 3>과 같다.

<表 3>에서 보듯이 지금까지 다양한 이윤이론이 개발되었으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에 대해서도 주요한 요인들이 각 이론의 틀에서 어느 정도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조직 내부의 문제와 이윤의 발생, 나아가 이러한 이윤창출메커니즘이 전체 경제를 설명하는 이론체계와 어떤 방식으로 관련되는지 체계적 설명을 하는 것은 미흡한 편이다. 이에 따라 분배이론을 탐구하는 이론적 업적의 천착과 숙의를 통해서 복합적 현상인 이윤의 본질이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단순하게 표현하려는 노력도 부족한 편이다.

그런데 이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알



〈表 3〉 다양한 이윤이론과 이론적·실제적 함의

학파·학자	이윤이론	이윤발생의 실제적 원천	이론적 귀결
고전학파	이윤잔여설	분업의 이익과 같은 생산과정 상의 잉여	생산비에 의해 정해지는 장기균형 가격 하에서의 균등이윤을 실현
신고전학파	한계생산력설	자본의 한계생산성	단기균형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요소는 그 기여분에 의해서 보수 획득
슈페터	기술혁신설	기술혁신에 의한 독점	균형을 파괴하는 독점적 혁신기업 등장과 모방집단에 의한 이윤소멸 과정의 순환
나이트	불확실성이론	시장불확실성에 대한 기업가의 선택, 특히 기업내부의 역할 조정	불완전 균형상태에서도 이윤 존재 가능
자원기반이론	핵심역량설	기업의 인적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한 경쟁우위	경제이론에서 덜 탐구되었으나 불완전 경쟁기업 이론과 부합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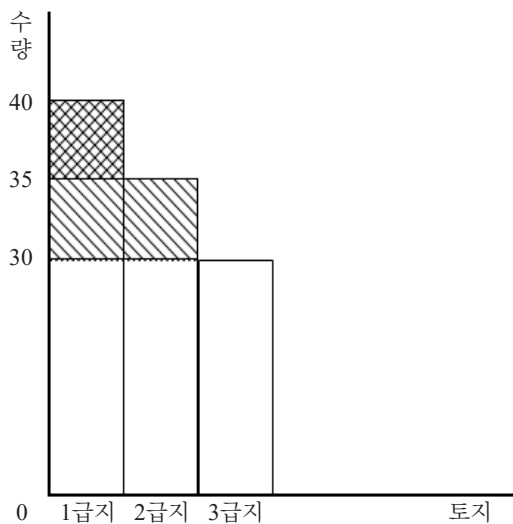
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 반면, 기업은 다양한 활동을 하는 복합체이므로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론이나 의견은 관찰자 수만큼 많다는 점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기업이 이윤 확보라는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내부적인 조직문화와 집단적 의사결정의 문제로 이를 쉽게 달성하기 힘들고 외부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진화하는 열린 복잡계(open complex system)라는 기본적 명제를 전제하고, 기업 활동의 결과인 이윤을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은지 계속 탐구해야 한다. 특히 기업은 경쟁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최선의 실행(best practice)을 찾아 모방적 행동을 하면서도, 혁신을 통해서 다른 기업과 차별화 행동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하나 경쟁과정의 결과가 경제전체적으로 어떻게 정립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탐구해야 한다.<sup>(21)</sup> 이러한 탐구의 결과 기업의 속성에 대한 기본적 합의가 생기고 기업과 이윤과의 관계를 잘 제시하는 이론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21) 기업이 모방행동을 하는 경우 경쟁이 더 격화되는데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제도학과 경제학자 베블렌은 모방적 경쟁(emulation)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슈페터와 같이 기업이 혁신적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창조적 파괴가 나타난다. 제품의 질에 대해서 부분적인 개선을 할 경우에는 차별화(differentiation) 경쟁이 나타날 것이며, 이것을 개념화한 것이 독점적 경쟁이다.

〈보론〉 차액지대와 경제적 이윤의 기술적 유사성과 개념적 차이 (technical similarity and conceptual dif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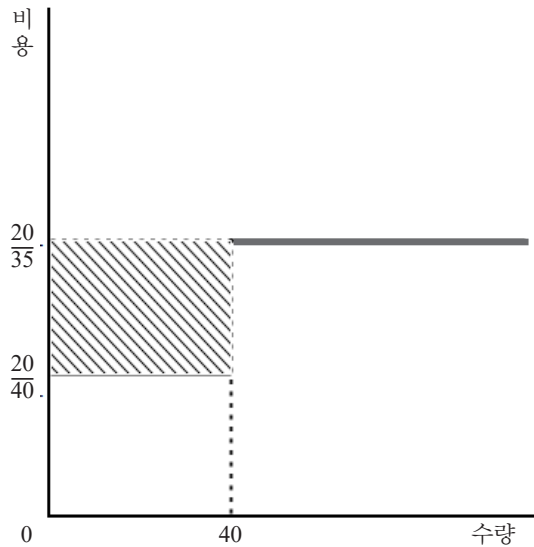
우선 리카도가 곡물의 자유수입을 주장하기 위해서 1815년에 발간한 팜플렛 『이윤론(Essays on Profit)』에 나온 소위 곡물모형(corn model), 즉 곡물을 투입물로 하여 곡물을 생산하는 1재화 모형의 수치예(numerical example)를 더욱 간단하게 만들어 다음과 같은 생산기술이 있다고 하자. 즉 곡물 20톤을 씨앗이나 임금재 등으로 가장 비옥한 1급 토지에 투입하면 40톤이 생산되고, 2급지에 투입하면 35톤이 생산되고, 3급지에 투입하면 30톤이 생산되는 단계적인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는 기술을 가정한다. 이와 같은 수확체감(diminishing returns) 상황에서 만약 곡물에 대한 수요가 40톤을 초과하여 있다면 어쩔 수 없이 2급지를 사용해야 하고, 1급지를 임대한 임차농은 1급지 소유자인 지주에게 생산성의 차이인 5톤만큼 차액지대를 지불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곡물수요가  $(40+35)=75$ 톤을 초과하면 3급지까지 경작될 것이므로, 1급지에는 10톤이 2급지에는 5톤의 차액지대가 부과될 것이다. 단, 한계지에는 지대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결국 수평축에 투입량을 수직축에 산출량을 기준으로 그린 〈그림 3〉에 나타나듯이, 차액지대는 한계지와 우등한 토지의 경작물의 생산성의 차이를 모두 합한 것이 된다.

그런데 물량 기준으로 차액지대를 표시한 그림을 비용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 1단



〈그림 3〉 생산성의 저하에 따른 차액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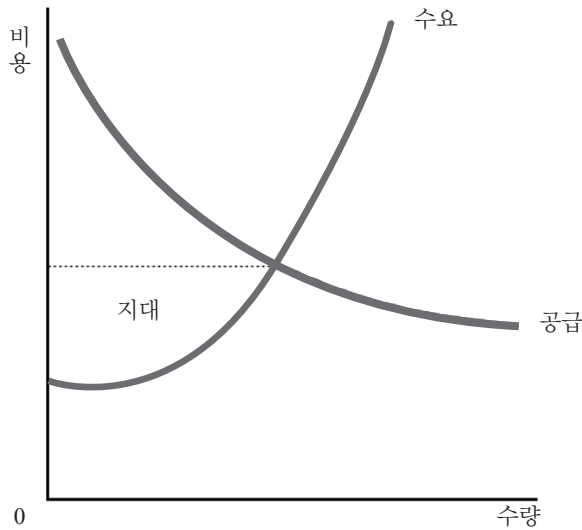
〈그림 4〉 비용증가에 따른 차액지대

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투입물의 양을 계산해보면, 1급지에서는 20/40톤, 즉 산출 1단위당 0.5톤이 투입된 것이고, 2급지에서는 산출 1단위당 20/35톤, 즉 0.57톤이, 3급지에는 0.67톤이 소요된 셈이 된다. 이와 같은 비용에 관한 수치를 수직축에 나타내고, 수평축에는 생산량을 나타낸다면, 〈그림 4〉와 같이 40톤, 75톤에서 꺾인 점이 나타나는 계단형 그림이 표시된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곡물생산량이 40톤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 더 많이 들어가는 비용과 원래의 낮은 비용의 이익만큼의 차액, 즉  $(0.57-0.5)$ 만큼 생산량 1단위당에 대해서 지대가 발생한다.<sup>(22)</sup>

리카도의 차액지대설을 비용측면에서 나타낸 〈그림 4〉를, 생산량의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연속적으로 된다고 보고 연속함수에 대해서 나타내면 바로 〈그림 5〉와 같이 된다.

〈그림 5〉는 바로 미시경제이론 교과서에 나타난 한계비용곡선이 되고, 완전경쟁상태에서는 공급곡선(S)이 된다. 나아가 수요곡선(D)을 그려보면, 균형가격과 한계비

(22) 〈그림 3〉에서와 같이 물량 측면에서 파악된 지대의 크기와 〈그림 4〉에서와 같이 비용 측면에서 파악된 지대의 크기는 완전히 동일하다. 두 그림에서 면적이 달라 보이지만 그것은 축을 측정하는 지표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며, 두 경우에 대해서 물량과 비용을 곱하여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같다. 즉, 생산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순간 지대의 전체 크기는  $5\text{톤} \times (20/35) = 40\text{톤} \times (20/35 - 20/40)$ 으로 정확히 일치한다.



〈그림 5〉 한계비용곡선과 지대

용곡선 사이의 면적은 차액지대가 나타내는 부분과 정확히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균형가격과 공급곡선 사이의 면적인 생산자 잉여(surplus)는 리카도가 말하는 차액지대가 발생하는 원리와 동일한 기술적 원리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생산자 잉여가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을 나타낸다면, 경제적 이윤은 생산성 차이에서 차액지대가 발생하듯이 생산량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라는 수확 체감 현상이 토지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어떤 고정투입요소(fixed input)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이러한 기술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고전학과와 신고전학의 개념들의 차이는 분명하다. 즉 고전학과에서는 이윤에 이자와 경제적 이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

(23) 영국의 마샬은 고전학파의 전통을 이어받아 신고전학파의 한계주의적 분석과 절충하기 위해서 기간(period)란 개념을 고안해냈다. 즉 고정투입요소가 있는 단기(short period)에서는 한계비용곡선이 우상향하므로 평균비용곡선이 U자형을 갖게 되는 반면, 기계 설비를 포함해서 모든 투입요소가 가변적인 장기(long period)에서는 평균비용곡선의 모양은 규모변화가 비용에 주는 영향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절충하게 된다. 나아가 마샬은 토지와 같이 장기적으로 공급이 고정될 가능성이 큰 요소가 아니더라도, 단기적으로 고정되나 장기적으로 가변적인 요소들이 있으므로, 그러한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성 이익을 준지대(quasi-rent)라는 개념으로 묶어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기 구분은 논리적 시간구분이며 현실적인 시간(calendar time)에서는 기술선택까지 모든 요소가 의사결정의 범위 안에 있으므로, 이윤발생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더욱 복잡하게 된다.

는 반면에, 신고전학파는 이자는 비용의 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한계비용곡선 아래의 비용 총액에 포함되게 된다. 즉 (고전학파의 이윤 = 경제적 이윤 + 이자)라는 식으로 간단히 표현될 수 있다. 이 식은 이자 부분을 단순히 우변에 옮겨서 적은 것이 아니다. 고전학파는 지대를 제외한 부가가치에서 임금이 그 일부만을 수취하기 때문에 이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이윤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차이는 고전학파와 같이 이윤을 설명하는데 재생산(reproduction)과정을 중시하는지, 신고전학파와 같이 자본의 희소성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홍기현(KEEHYUN HONG)

서울대학교 經濟學部 教授

151-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599

전화: (02)880-6379

팩스: (02)886-4231

E-mail: hongk@snu.ac.kr

## 참고문헌

- 김용열(2002): 『기업이란 무엇인가?』, 이슈투데이.
- 박만섭 외(2002): “케인즈의 고용이론: 장기이론적 해석,” 『케인즈의 경제학』, 제8장, 다산출판사.
- 박홍렬·신건철(2004): “기업통합이론과 기업경영전략: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1-192.
- 정기화·김태기(1994): “기업이론,”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자유, 시장 그리고 정부』, 제10장, 민음사, 383-405.
- 홍기현(1991): “현대자본논쟁의 과학방법론적 평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경제논집』,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30, 1, 33-59.
- \_\_\_\_\_(1992): “고전학파 가치론의 재검토,”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경제논집』, 31, 3, 207-225.
- \_\_\_\_\_(1994): “『자본론』은 자본주의를 잘 설명하는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 『경제논집』, **33, 3**, 281-306.
- \_\_\_\_\_(1996): “뫼바베르크와 피셔간의 이자율논쟁의 학설사적 의의,”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경제논집』, **35, 3**, 339-352.
- \_\_\_\_\_(1998): “미국 한계주의자에 대한 연구: 클라크와 피셔를 중심으로,” 한국경제 학사학회, 『경제학의 역사와 사상』, **1**, 185-215.
- \_\_\_\_\_(2002), “스라파 장기균형가격이론의 성과와 한계,”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경제논집』, **41, 4**, 381-401.
- \_\_\_\_\_(2007), “1930년대 균형개념과 가격이론의 변화에 대한 학설사적 평가,” 서울 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경제논집』, **46, 3**, 155-171.
- \_\_\_\_\_(2010): “1890-1930년대 경제학계 논쟁에 대한 방법론적 평가: 오스트리아 학 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경제논집』, **49, 3**, 139-164.
- 홍기현 · 이근(1998): “경쟁, 기업조직 및 기술혁신: 진화론적 경제학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경제연구소 편, 『경제논집』, **37, 2**, 337-366.
- Barney, Jay(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 1**, 99-120.
- Boëhm-Bawerk, Eugen von(1889): *Kapital und Kapitalzins*, Vol.1, English translation by G. D. Huncke and H. F. Sennholz(1959), Libertarian Press.
- Blaug, Mark(1985): *Economic Theory in Retrospect*, 4<sup>th</sup>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rk, John Bates(1899): *The Distribution of Wealth*, New York, Macmillan Co.
- Fisher, Irving(1907): *The Rate of Interest*, New York, Macmillan Co.
- Friedman, Milton(1953): “The Methodology of Positive Economics,” in *Essays in Positive Economics*, Chicago, Richard Irwin Co.
- Garegnani, P.(1984): “Value and Distribution in the Classical Economists and Marx,” *Oxford Economic Papers*, **36, 2**, 291-325.
- Hollander, Samuel(1987): *Classical Economics*, 1<sup>st</sup> ed., Oxford, Basil Blackwell Ltd.
- Hong, Keehyun(1992): “Austrian Capital Theory and 'Dynamic' Analysis of Schumpeter vs. Hayek,” *Seoul Journal of Economics*, **5, 2**, 167-192.
- \_\_\_\_\_(2015): “Why Capital Controversies Occur Repeatedly: A Methodological Interpretation,” *Seoul Journal of Economics*, **28, 3**, 285-310.

- Jevons, W. S.(1871):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3<sup>rd</sup> ed., London, Macmillan and co.
- Keynes, John Maynard(1936):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sup>st</sup> ed., New York, Harcourt, Brace and Company.
- Knight, Frank(1921): *Risk, Uncertainty, and Profit*, 2<sup>nd</sup> e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gate, Murray(1979): “On the Origin and the Notion of ‘Intertemporal Equilibrium,’” *Economica*, **46**, **181**, 545-565.
- Mongine, Phillippe(1992): “The ‘Full-Cost’ Controversy of the 1940s and 1950s: A Methodological Assessment,”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24**, **2**, 311-356.
- Okisio, Nobuo(2001): “Competition and Production Pric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5**, **4**, 493-501.
- Ricardo, David(1815): “An Essay on the Influence of a Low Price of Corn on the Profits of Stock,” in Piero Sraffa ed.,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Vol. 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_\_\_\_\_(1817):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in Piero Sraffa ed.,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David Ricardo*, Vol. 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umpeter, Joseph A.(1934): *The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English translated by R. Opie, Oxford University Press.
- Smith, Adam(17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김수형 역(1992), 『국부론』, 동아출판사.
- Spiegel, Henry William(1983), *The Growth of Economic Thought*, revised ed., Duke University Press.
- Sraffa, Piero(1960): *Production of Commodities by means of Commoditi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Abstract**

## A Historical Survey on Theories of the Justification of Profit and Interest

Keehyun Hong

In Classical economics, profits in the long run are explained as the residual after all expenses are paid in the production process and interests are regarded as parts of profits. This surplus approach from the production viewpoint vanished after the marginal revolution in the 1870s. In Neoclassical economics, more attention is given interests as payment for the marginal product of capital and economic profits, which may exist only in the short run, are explained as the outcome of more superior production facilities.

These two contrasting views may explain the part of profits in the real operation of firms, but they do not tell the whole story on the generation of profits, since their methods of observation are two extreme cases, one being too holistic and the other being too individualistic. Firms' behavior in a real world is more complex. This paper argues that more attention has to be given on the essential firm behavior, such as technological innovation, product innovation, and sustaining competitive advantages by organizational coordination. In this light, the contribution of Knight and resource-based theorists will shed much light on why profits are generated in the real-world competitive process. These theories examine the coordination role of an entrepreneur to keep rare and immobile, and thus imperfectly imitable resources, such as human network. If economists pay more attention to this aspect, they may succeed in telling a more compelling story about why profits exist even at equilibrium.

**Keywords:** Profit, Interest, Classical theory of production cost, Neoclassical theory of distribution, Schumpeter's theory of innovation, Knight's view on uncertainty, Resource-based theory of firm